

제56차 KCERN 공개포럼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최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수반으로 미세먼지 범 국가 기구가 4월 22일 출범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부터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작년에만 940억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는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미세먼지 논쟁에 또 하나의 제안을 더하는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미세먼지인 PM10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농도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가 2016년 66회에서 2018년 162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평균이 아니라 고농도 초미세먼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KCERN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적 전략으로 실내 미세먼지 감축과 장기적 전략으로 미세먼지 디지털트윈을 통한 스마트 대책이라는 양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럼 개요

- 일 시: 2019. 4. 30. (화) 14:00~16:30
- 장 소: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3호선 매봉역 도보 5분 거리)
- 주 관: KCERN

| 시간 | 내용 | 사회 및 발표자 |
|-------------|---|--|
| 14:00~14:05 |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 김다해 KCERN 연구원 |
| 14:05~14:35 |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 이민화 KCERN 이사장 |
| 14:35~15:00 | 미정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 15:00~15:25 | 미정 | 김가영 KISTEP 부연구위원 |
| 15:25~16:15 | 패널토론 *패널은 좌장 외 가나다 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민화 KCERN 이사장(좌장)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연순 강남구 환경과 과장 차원용 KCERN 연구위원 |
| 16:15~16:25 |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 좌장 및 패널 |
| 16:25~16:30 | 마무리 | 좌장 |